

이야기지도안

교육목표

제목 논을 밭으로 만든 이황

나이 어린이 (6~9세)

주제

- **목표** : 남을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는 학자 이황의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주제** : 배려

핵심어 이황, 도산서원, 천 원, 화폐, 농사, 벼농사, 밭농사, 쌀, 조선, 선비, 학자

한국문화

- **목표** : 이황의 이야기를 듣고 농사짓기에 관심을 가진다.
- **요소** : 농사

한국어

- **목표** :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관련 있는 속담을 배워본다.
- **단어** : 물 대기
- **표현** : 제 눈에 물 대기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000,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예요.



제목 알리기

오늘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제목 나와라 똑딱!
‘논을 밭으로 만든 이황’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쌀밥을 먹어요. 쌀은 벼의 열매예요. 벼를 논에 심는 것을 논농사라 하고, 콩이나 배추를 밭에 심는 일을 밭농사라고 해요. 논농사는 귀한 쌀을 얻을 수 있지만, 물이 많이 필요해서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반대로 밭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요. 이황은 논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었지만 일부러 논을 밭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이야기 시작 노래 부르기

‘논을 밭으로 만든 이황’ 이야기 속으로 출발!

♪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 보아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 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



이야기 들려주기

옛날 옛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에는 책을 많이 읽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이황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황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마음씨를 지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황을 믿고 따랐어요. 이황은 학교를 세워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학교의 이름은 도산서원이에요. 오늘날 천 원짜리 돈에는 이황과 도산서원이 그려져 있어요. 이황을 계속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의 소망이 담겼기 때문이에요.

이황이 고향인 안동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의 일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논농사를 짓고 살았지요. 논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은 시냇물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논에 찰랑찰랑 물이 차게 했어요. 그래서 논농사에는 논에 물을 대는 일이 아주 중요했지요. 이황이 살고 있는 마을 앞에도 시냇물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논에 물을 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논까지 물을 대기에는 시냇물이 부족했어요. 논에 물을 대지 못해 벼를 수확하지 못하는 농민들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황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하인들이 하는 말소리가 들렸지요.

“우리나라의 논은 시냇가에 있어서 논농사 짓기에 정말 좋아. 물 대기가 쉽잖아.”



이야기 들려주기

“맞아. 가뭄이 들어도 끄떡없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에는 물이 모자라 농사짓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어.”

“하긴, 우리 논에 물을 대고 나면 마을 사람들과 나눌 물이 모자라긴 해.”

이황은 하인들의 대화를 듣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 논에서 시냇물을 다 써서 그렇구나.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황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인을 불렀어요.

“우리 논을 밭으로 바꾸어 밭농사를 짓도록 하여라.”

하인이 깜짝 놀랐어요.

“네? 쌀이 많이 내려면 논에 벼를 심어야 합니다. 밭에는 고작 콩이나 채소들만 심을 수 있습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황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허허허, 나는 밭농사만 지어도 먹고 살 수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논농사를 망치면 어찌 살겠느냐? 밭농사는 물이 훨씬 적게 드니, 적은 물로 농사를 짓도록 하여라. 남은 물을 다른 사람이 쓴다면 골고루 곡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인들은 이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역시 마음씨가 넓은 분이셔.”



이야기 들려주기

하인은 그제야 이황의 깊은 뜻을 알고 감탄하며, 이황의 말대로 논을 밭으로 만들었어요. 하인이 열심히 밭농사를 지어서 밭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이황의 배려로 마을 사람들은 논에 물을 잘 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보다 많은 쌀을 수확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황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며 더욱 존경하게 되었어요.



한국문화, 한국어 소개하기

여러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잘 들었나요?

논농사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맞아요. 논에 물을 대는 일이에요. 농부들은 모두 자기 논에 물을 대고 싶어 했어요. 어떤 농부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논에만 물을 대기도 했어요. 이럴 때 ‘제 논에 물 대기’라고 표현해요. ‘제 논에 물 대기’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쓰는 속담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속담이 많아요. 어떤 속담이 있는지 부모님과 함께 찾아보아요.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지어 작물을 수확해요. 그걸로 밥과 반찬을 만들어 먹고 살지요. 그래서 농사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농사를 짓고 살았나요?

그래요. 물이 많이 필요한 논농사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밭농사를 지었어요. 논에는 벼를 심고, 밭에는 콩이나 채소들을 심었지요. 농사가 잘되면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어요. 농경 문화가 궁금한 친구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홈페이지’ 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아요!



이야기 정리하기

여러분, 할머니와 ‘논을 밭으로 만든 이황’ 이야기를 정리해 보아요.

이황은 자기의 논을 밭으로 바꾸었어요. 이황의 논에 물을 대면 시냇물이 부족해서 마을 사람들이 논농사를 짓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이황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도 이황처럼 주변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말하며 먼저 손을 내밀어 보아요.



이야기 마치는 노래 부르기

그럼, 이야기 마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할머니랑 인사합시다.
이야기 마치는 노래 시작!

♪ 하나 둘 셋 넷! 잘 들었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정말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만나요. 뽕뽕!♪



인사 나누기

배꼽 손! 인사!

여러분, 다음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또 만나요. 안녕!